

굿바이~ 카라

내달 2일 계약 만료로 해체 ... 박규리·한승연·구하라 새 소속사 물색 중

결그룹 카라가 끝내 해체한다. 카라의 세 멤버는 오는 2월 2일 전속 계약 만료와 함께 뿔뿔이 흩어진다. 소속사의 공식 발표만 남겨졌다.

11일 가요계에 따르면 카라의 박규리·한승연·구하라는 2월 2일 계약 만료로 앞두고 소속사 DSP미디어와 재계약 하지 않고 각자 새 소속사로 떠난다.

복수의 가요 관계자들은 “세 명이 소속사와 재계약하지 않고 떠나는 건 이미 결정됐고, 지난해 말부터 새 소속사를 물색한 이들의 마음의 결정도 대략 내려졌다”며 “아직은 현 소속사와 계약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도장만 안 찍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DSP미디어는 전속 계약 기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그간의 카라 활동과 관련 제반 절차가 필요해서인지 “재계약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재계약은 보통 종료 몇 달 전에 이뤄지며 세 멤버의 행보를 고려할 때 해체는 결정된 상태로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소속사의 공식 발표만 남은 상황이다.

지난 6일 구하리와 한승연이 DSP미디어 대표와 만난 사실이 알려져 ‘막판 변수’를 기대했지만, 재계약 관련 논의보다는 새해 인사 겸 어떤 방식으로 팀을 잘 마무리할지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14년 새 멤버로 합류한 카라의 허영지만 남게 된 상황으로 DSP미디어가 이후 카라의 멤버를 새롭게 구성해 팀의 명맥을 이어갈진 알 수 없지만 ‘지금의 멤버’로는 팀 활동 종료다.

일본에서 활약한 대표 K팝 걸그룹인 카라는 일본과의 계약도 중요한데, 관련 계약도 지난해 12월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 멤버가 갈 기희사는 대략 윤곽이 떠올랐다. 일본과 중국 등 해외 활동에 관심이 많은 구하리는 키이스트, SM C&C, JYP엔터테인먼트 등 글로벌 시스템을 갖춘 대형 기획사와 접촉설이 나왔다.

그중 배용준의 기획사 키이스트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키이스트 역시 지금이로서 “미팅을 한 건 맞지만 결정 나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연기 활동에 의지가 강한 한승연은 카라 활동 때 함께 일한 스테프가 있는 배우 기획사를 물밑 접촉 중이다. 박규리 역시 연기 활동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기획사의 이름이 거론됐다.

올해로 데뷔 9주년을 맞은 카라의 해체는 가요계에서 여러 의미가 있다. 카라는 2007년 데뷔해 소녀시대, 원더걸스와 함께 걸그룹 시대를 연 주축이다. 이들 중에서도 카라는 일본 활약이 단연 돋보였다. 지난 2010년 오리콘이 발표한 ‘연간 랭킹’의 신인 음반 매출 부문에서 소녀시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

했으며, 2011년에는 일본에서 활동한 한국 가수 중 CD·DVD 매출 최고 기록을 세웠다. 2013년 1월에는 한국 걸그룹으로는 처음으로 도쿄도 공연도 성공적으로 치렀다.

그러나 정상급에 오르기까지 멤버 교체, 소속사와 갈등으로 잡음도 이어졌다. 활동 초기 멤버 김성희의 탈퇴를 시작으로 구하리와 강지영의 영입, 강지영과 니콜의 탈퇴, 허영지의 합류 등 멤버 변화가 심했다.

2011년 1월 세 멤버(니콜, 한승연, 강지영)가 소속사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해 한차례 해체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일명 ‘카라 사태’로 세 멤버는 진통을 겪은 지 3개월 만에 소송을 취하하고 팀에 복귀했다.

그러나 니콜이 2013년 10월 카라를 탈퇴했고, 강지영 역시 전속 계약이 종료되자 2014년 4월 팀을 떠났다. 다섯 멤버 가운데 두 명이 나가면서 한때 ‘휘청’했던 그룹은 허영지를 투입해 4인조로 활동했지만, ‘카라 사태’ 이후 예전 인기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았다.

마지막 앨범 활동은 지난해 5월 발표한 일곱 번째 미니앨범 ‘인 러브’(In Love)가 끝으로, 카라가 팬들에게 인사하는 마지막 자리를 가질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지난 10일(현지시간) 열린 제 73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영화 ‘레버넌트’로 남우주연상을 받은 리어나도 디캐프리오(오른쪽)와 감독상을 받은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나리투.

‘레버넌트’ 골든 글로브 3관왕

작품상·감독상·남우주연상 ... 조수미 주제가상 수상 실패

할리우드 영화 ‘레버넌트’ : 죽음에서 돌아온 자’가 제73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영화 드라마 부문 작품상과 남우주연상, 감독상을 차지하며 3관왕에 올랐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스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레버넌트’는 드라마 부문 작품상과 남우주연상(리어나도 디캐프리오), 감독상(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나리투)을 받았다.

영화 레버넌트는 19세기 미국 서부개척 시대기 시작되기 전 동료 사냥꾼으로부터 배신을 다하고 죽을 위기에 처한 휴 글래스(리어나도 디캐프리오)가 복수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내용으로 실화를 소재로 했다.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은 2008년 오스트리아에서 발생한 밀실 감금 사건을 모티브로 한 아일랜드 작가 엠마 도노휴의 동명 소설 원작의 ‘룸’에서 열연한 브리 라슨이 받았다. 영화 뮤지컬·코미디 부문 작품상은 리틀리 스코트 감독의 ‘마션’이 차지했으며, 남우주연상은 ‘마션’의 맷 데이먼, 여우주연상은 ‘조이’의 제니퍼 로렌스에게 각각 돌아갔다. 남배 조연상은 ‘크리드’의 실베스터 스탤론과 ‘스티브 잡스’의 케이트 윈슬릿이 각각 수상했다.

외국어영화상은 라즐로 네메스 감독의 헝가리 영화 ‘사울의 아들’에게 주어졌고, 애니메이션상은 ‘원사이드 아웃’이 수상했다.

주제가상은 샘 스미스가 부른 ‘007 스펀터’의 주제가 ‘라이팅스 온 더 월’(Writing’s on the wall)가 차지했다. 당초 스포트라 조수미가 영화 ‘유스’에서 부른 주제가 ‘실름송’도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에 실패했다. 팝가수 레이디 가가는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로 생애 첫 여우주연상(TV 미니시리즈 부문)을 받아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할리우드외신기자협회(HFPA)가 매년 주관하는 골든글로브상은 전통적으로 아카데미상의 ‘시금석’으로 불리며, 미국 영화·방송 분야에서 영향력이 높은 시상식이다. /연합뉴스

◇영화 부문 주요 수상 내역
▲드라마 작품상 : ‘레버넌트’ : 죽음에서 돌아온 자 ▲각본상 : ‘스티브 잡스’(아론 소킨) ▲감독상 :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나리투(‘레버넌트’) ▲드라마 남우주연상 : 리어나도 디캐프리오(‘레버넌트’) ▲드라마 여우주연상 : 브리 라슨(‘룸’) ▲뮤지컬·코미디 작품상 : ‘마션’ ▲뮤지컬·코미디 남우주연상 : 맷 데이먼(‘마션’) ▲뮤지컬·코미디 여우주연상 : 제니퍼 로렌스(‘조이’) ▲남우조연상 : 실베스터 스탤론(‘크리드’) ▲여우조연상 : 케이트 윈슬릿(‘스티브 잡스’) ▲애니메이션상 : ‘원사이드 아웃’ ▲외국어영화상 : ‘사울의 아들’ ▲음악상 : 엔니오 모리코네(‘헤이트풀8’) ▲주제가상 : 샘 스미스(‘007 스펀터’) ▲평생공로상 : 덴젤 워싱턴



TV 프로그램

TV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토크쇼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채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방학특선 다큐멘터리 (공교육이나 사교육이나 학교버려보기)	40 지구촌 뉴스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	45 위기탈출 넘버원 플러스	00 월화드라마 (무림학교)(재)	00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재)	10 닥터 365(재) 15 글로벌 문화유산 50 SBS 12 뉴스
12 40 채널A 뉴스 특보	00 KBS 뉴스 12	05 생생정보 스페셜	2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45 닥터 365 55 특목보합설계
1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빛가족(재)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	00 시간을 달리는 TV(재)	20 문화사색(재)	
2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05 내꺼야 풀록 30 꾸러기 식사교실	00 영재 발굴단(재)
3 00 이언경의 직언직설	00 안영 우리말(재) 05 청년 대한민국 NCS 미래학교. 재능을 이룬다(재) 55 튜튼생활제2	05 후두소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부책임 위키	00 MBC 뉴스 10 뚝? 뚝! 키즈쿨 55 아빠 어릴 적엔	00 3시, 뉴스브리핑
4 30 캐드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특집 다큐 밀크로드(재)	00 TV유치원 30 이욱정PD의 요리인류 키친(재) 40 동물의 세계	2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30 고교 다이노
5 50 김승현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나는 몸신이다(재)	00 KBS 뉴스7 30 시사현장 맥 55 집중인터뷰 이사람	50 일일드라마 (다 잘될거야)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지 따따부따 3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0 갈때까지 가보자(재)	25 우리집 골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스타킹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뉴스	00 청년에게 희망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55 숨터	00 월화 드라마 (무림학교)	00 월화특별기획 (화려한 유혹)	00 청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
11 00 충격 실화극 싸인(재)	00 KBS 뉴스라인 40 창의 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10 우리동네 예능	10 PD수첩	15 불타는 청춘
12 30 개밥주는남자(재)	35 독립영화관 (두만강)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문토론	35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11:10 다큐 오늘	15:30 세계사 시간여행	20:50 세계테마기행
05:30 건강엔리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40 모피와 친구들	〈낯선 시간으로의 초대, 요르단 2부 올리브 나무 사이로〉
05:40 성공 인생후반전	12:00 EBS 정오 뉴스	15:5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재)	21:30 한국기행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2:10 아시아 6개국 공동제작 네도 동생이 있니?	16:30 코코코 다코(재)	〈영덕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 칠보산 산골마을 굿극리〉
07:00 레이디 버그	13:05 지식채널e	16:45 당동당 유치원1~3(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10 프라인인	17:30 뽀롱뽀롱 뽀로로	〈위대한 토마 2부 제국의 도시 - 폼페이〉
07:45 로보카 폴리	13:10 프라인인	17:45 로보카 폴리	22:45 다큐영화
08:00 당동당 유치원1~3	13:40 줄거운 수학 EBS MATH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3	〈미안야 물장수 엄마의 꿈〉
08:45 코코코 다코	13:50 오스카의 오아시스	18:45 신동광둥 공룡 슈퍼	23:35 프라인인
09:0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	14:00 초등 1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8:55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4	24:05 지식채널e(재)
09:40 토크쇼 부모(이슈 N 맘)	14:20 초등 5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9:00 레이디 버그(재)	24:10 EBS 인문학 특강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4:40 초등 3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9:30 EBS뉴스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00 꼬마 철학자 후고	19:50 국한직업	
	15:15 꼬마가사 마이코	20:40 다큐 오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2일(음 12월 3일 癸巳)

<p>子</p> <p>48년생 생산적인 정황이 수시로 속출하는 국세이니 잘 활용한다면 상당한 특이 되리라. 60년생 공돌이었던 바가 다방면으로 진척을 보인다. 72년생 빛을 보게 되는 날이다. 84년생 활로를 여는 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5, 45</p>	<p>午</p> <p>42년생 구체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54년생 퇴로를 열어 놓고 이행해야만 훗날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66년생 대응해야 할 때가 되었으니 추진하는 것이 옳다. 78년생 기본 일로 인해 신명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6, 29</p>
<p>丑</p> <p>49년생 펼쳐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교직는 형상이니라. 61년생 전체적인 판국이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다. 73년생 미세한 부분을 세밀하게 고찰해야 한다. 85년생 미진하더라도 인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12, 24</p>	<p>未</p> <p>43년생 인식을 함께하려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것이다. 55년생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판세이니 애매하리라. 67년생 제반사가 불리하니 차분하게 대비하라. 79년생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71, 19</p>
<p>寅</p> <p>50년생 멀리서부터 상서로운 기운이 비취우고 있으니 마음의 문을 열고 맞이해야 할 때다. 62년생 원칙에 따라서 순리대로만 처리하라. 74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86년생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때이니라. 행운의 숫자 : 58, 82</p>	<p>申</p> <p>44년생 성장을 위한 진통제가 되리라. 56년생 기가스로 들어오는 기는 하지만 나가게 될 것이 훨씬 더 많으니 걱정이 태산 같아서 한숨이 절로 나온다. 68년생 심상치 않은 점에도 된다. 80년생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8, 63</p>
<p>卯</p> <p>51년생 단번에 큰 것을 이루기에는 무리가 따르니 점진적으로 행하라. 63년생 보편타당해야만 실력을 얻게 되는 법이다. 75년생 방법이 따라서 상황이 편이해질 수 있겠다. 87년생 목표에도 도전해도 되는 무난한 날이로다. 행운의 숫자 : 15, 37</p>	<p>酉</p> <p>45년생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니 노파실망 내려놓아도 된다. 57년생 빠른 속도의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69년생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도다. 81년생 현상감 있는 실제적 영성이 절실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32, 79</p>
<p>辰</p> <p>40년생 상대의 술수가 보인다. 52년생 다음이 더 나으니 마음을 잘 다스리라. 64년생 과신은 금물이다. 76년생 오래된 인간관계에서 파생된 인연이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88년생 확실히 벗어나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84, 96</p>	<p>戌</p> <p>46년생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수 있다. 58년생 불만하면 망설이지 말고 개운하게 뜯어고쳐야 후회가 없을 것이다. 70년생 얻기는 어려우나 잃기는 쉽다. 82년생 심한애야 차별 회시시킬 수 있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64, 99</p>
<p>巳</p> <p>41년생 실질적인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될 것이니 대응 방안을 모색하라. 53년생 모순점이 보인다. 65년생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77년생 체면을 의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89년생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1, 50</p>	<p>亥</p> <p>47년생 남 좋은 일만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라. 59년생 같음으로 기대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71년생 바늘을 아끼려다가 황소를 잃는 격이다. 83년생 눈앞의 이익 때문에 숨겨진 화를 간파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5, 89</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